

이재명 “DJ·노무현도 고통... 사법 쿠데타”

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조사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
호남 민심·정치권 정국 변화 주목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정국이 출렁이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둘러싸고 원색적인 비난전을 펼쳤으며 호남 민심도 향후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성남지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포토라인에선 이 대표의 입장문을 통해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서 있다”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 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후원금을 유지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등 당분간 정국이 출렁일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매듭지를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선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의혹으로 제기된 뇌물액이 170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전구속영장 청구된다면 국회 본회의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

속영장을 각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과 정치권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따른 정국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 성격의 띠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 대표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민심이 출렁이고 내년 총선 구도도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지역 민심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대선 공약 ‘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약속 지켜낼까

산자부, 2월 27일까지 신청서 접수
광주·전남 등 지자체 경쟁 치열

광주·전남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도전장을 내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종착점을 향해 치닫하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각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까지 예고되면서, 막판 물밑 경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

원부(이하 산자부)는 이날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업,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시엔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부터 각종 사업화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사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한도 1.4배까지 완화,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도 적용돼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다. 산자부는 다음달 27일까지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 계획 신청서를 접수한 뒤 계획서 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보완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산자부에서 밝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주요 평가 항목은 ▲지역 또는 기업 중 전문인력·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및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 법적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지 ▲수

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및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이 핵심이다. 평가 항목에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요구해 온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 안배 항목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내의 기업유치 및 선도기업 투자유치 계획을 주요 평가 항목에 넣은 점도 광주·전남에게는 부담이다.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평가항목을 감안해 지역의 강점인 AI, 자동차,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 효과 등을 집중 부각하는 한편 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 유치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尹, UAE·스위스 방문
이재용·정의선·조현준 회장 등
100여개 기업 경제사절단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8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 초청으로 14~17일 UAE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 정부의 UAE 국빈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하고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지난달 특사로 파견, 양국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UAE 방문을 통해 전방위 분야에서 경제외교를 펼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순방에 동행한다. 윤 대통령 순방에 이따금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다수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원전, 에너지, 방산, 기후변화, 우주, 보건 의료, 스마트팜, 문화 콘텐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계 금융시장의 ‘큰 손’인 UAE국부펀드와도 구체적인 협력 투자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한-UAE 비즈니스 포럼 및 상담회도 참석,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UAE 원전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이 수출한 원전 중 1·2호기는 이미 준공됐고 3호기는 올해 준공을 앞둔 상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다보스포럼은 주요 정상들과 유수의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주도의 국제회의로, 이번 회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신년 인터뷰 ▶3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년 ▶6면
KIA 정해영 “더 단단하고 독해져 돌아올 것”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이보다 쉬울 수 없다.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 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온라인샵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온라인 결제 시스템,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국내 수입처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Trade-in 프로그램, 차량 매입 프로그램,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 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